https://doi.org/10.18856/jpn.2026.32.3.003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현대 판타지 웹소설의 퀴어한 남성성/들

- 〈전지적 독자 시점〉, 〈내가 키운 S급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를 중심으로*

정윤영**

1. 서론: 이들은 왜 이토록 사랑받는가?
2. ‘남성’과 경쟁하지 않는 남성성/들
3. ‘여성’을 소유하지 않는 남성성/들
4. ‘다르게’ 희생, 양육, 반성하는 남성성/들
5. 결론: ‘우리’는 어떤 남성성/들을 원하는가?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소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에 등장한 현대 판타지 장르의 인기 웹소설들인 〈전지적 독자 시점〉·〈내가 키운 S급들〉·〈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 재현된 ‘퀴어한’ 남성성/들에 주목하되, 그러한 남성성/들이 주조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일자적 보편성으로서의 남성성이 아닌 차이의 남성성/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추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써 당대의 인기 웹소설들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남성성/들을 실험해 보는 사변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7012117).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이후연구소 선임연구원

www.kci.go.kr

이 논문은 이분법적 젠더/섹스 체계를 심문에 부치는 퀴어 이론의 관점을 빌리되, 특히 래윈 코넬(Raewyn Connell)과 잭 핼버스탬(Jack Halberstam)의 남성성 이론에 바탕을 둔다. 코넬에게선 남성성의 구성성과 복수성에 관한 논의를, 핼버스탬에게선 '고쳐 쓰는 남성성'에 대한 관점을 빌린다. 아울러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의 유일한 대타항으로 삼는 이분법적 젠더/섹스 체계의 유성애중심적·이성애중심적 한계를 고려하기 위해선, '남성성'의 구성 원리를 규명할 때 그것의 대타항을 다양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각 텍스트의 남성 주인공과 남성 조연의 관계(2장), 남성 주인공과 여성 조연의 관계(3장), 남성 주인공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4장)를 차례로 살피면서, 주인공의 '남성성'이 각 층위의 규범성과 불화하는 퀴어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더 구체적으로는, 남성 동성사회 내부의 남성성 분배 구조에 대한 저항, 가부장제의 자장 바깥에서 수행하는 여성 동일시적 태도, 그리고 희생·돌봄·반성과 같은 공동체 지향적 행위들을 규범적 남성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양상을 살핀다.

요컨대 이 논문은 세 텍스트가 퀴어한 남성성/들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재현해 왔음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국내 퀴어 문학사와 웹 문학사에 세 텍스트의 정당한 자리를 마련하고, 작금의 웹 문학이 새로운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특히 활발히 발휘하는 장르임을 밝힌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웹소설, 현대 판타지, 〈전지적 독자 시점〉, 〈내가 키운 S급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남성성, 퀴어, 회빙환)

www.kci.go.kr

1. 서론: 이들은 왜 이토록 사랑받는가?

작품	〈전독시〉	〈내스급〉	〈어바등〉
연재 기간	2018~2020	2018~2022	2021~2023
연재 분량	총 1,053회	총 872회	총 422회
(1) 총조회수(회)	61,303,184	24,986,126	2,285,121
(2) 추천수(회)	2,310,337	1,186,207	129,883

〈표1〉 〈전독시〉·〈내스급〉·〈어바등〉의 기본 정보(2026년 8월 기준)

〈표1〉이 확인해 주듯이,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 〈내가 키운 S급들(이하 〈내스급〉),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이하 〈어바등〉)는 당대의 대표적인 인기작들이다.[1] 〈전독시〉와 〈내스급〉은 ㈜네이버웹툰에 동명의 웹툰이 론칭되면서 상당수의 독자가 새로 유입되기도 했는데, 특히 〈전독시〉는 웹툰 오픈 한 달 만에 16억의 추가 수입을 올리는 등 원천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증명했다.[2] 그런데, 이들의 인기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웹소설의 연구 가치나 각 작품의 ‘문학성’을 곧장 보증해 주리라는 순진한 믿음 때문은 아니다. 대중서사 연구와 문화연구 차원에서 웹소설 연구의 정당성과 시급성 그리고 웹소설에 대한 진

1) 세 작품의 성과를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표1〉은 ㈜문피아의 자료에 단일 기반하여 작성했다. 그러나 ㈜네이버시리즈, ㈜리디북스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수도 상당하고, 완결 이후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 E-book 상품 및 종이책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세 작품의 독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전독시〉의 경우 2023년도 2월부터 본격적인 외전 연재를 시작하여 2026년 8월 현재까지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으나, 연재 기간의 경우 본편이 완결된 시점으로 기재했다.

2) 박명기, 〈네이버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누적 거래액 100억 원 껑충〉, 『게임톡』, 2021.05.28.,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24. (접속일: 2026.10.07.)

www.kci.go.kr

지한 텍스트 비평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다.[3][4]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선행 연구들에 크게 빚진 상태로,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연재된 세 편의 인기작을 젠더/섹슈얼리티 관점에서 분석하는 주제론적 작업이다.

〈전독시〉·〈내스급〉·〈어바등〉에는 꽤 의미심장한 공통점들이 있다. 첫째로,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자기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인물들이다. 이는 국내 웹소설사(史)의 한 사건인 현대판타지와 로맨스판타지의 장르 분화 현상과 함께 생각될 필요가 있다.[5] 이 분화 과정에서 판타지와 로맨

3) 이와 관련하여 국내 웹소설 연구의 기초를 다진 대표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준현, 「문학계의 평행우주,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하여」, 『작가들』 제73호,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20, 118-136쪽; 이지용, 「웹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학연구』 제7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47-72쪽; 이융희, 「국내 웹소설 연구 현황에 대한 비판적 점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3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5, 143-174쪽.

4) 박인성의 최근 논의는 웹소설 연구의 두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하나는 "웹소설을 전통적 문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연구의 대상 텍스트로 바라보면서도, 전통적인 국어국문학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웹소설을 IP 콘텐츠로서 바라보고, 이에 수반되는 상업성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유통 및 소비 방식"(박인성, 「디지털 전환 시대 현대 한국문학 연구의 동시대성: 웹소설·대중문화 콘텐츠·AI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0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84-85쪽)이다. 보론하자면, 국내 웹소설 연구사의 초기에는 '웹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정의, 웹소설과 장르소설의 경계, 웹소설의 매체성 등을 규명하는 논의들이 이 새로운 연구 분야의 기틀을 확립했고,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론 비평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에 2010년대의 일부 연구들은 웹소설에 대한 진지한 비평을 시급한 과제로 요구했으며, 그에 응답하듯이 2020년대부터는 전통적인 문학연구의 작품론·주제론·작가론에 비견되는 텍스트 중심적인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웹소설 연구가 '웹'과 '소설'이라는 두 가지 성질 중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웹 문학'을 통해 '문학'과 '문학적인 것'의 범주를 근본적으로 재고찰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판타지와 로맨스가 이분법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전과 달리 두 장르 간의 교섭 결과인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크게 번영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는 "로맨스 판타지가 지나치게 많다"(김지우, 「웹소설 판타지 장르군 분화 과정 연구:로맨스 판타지 분화 논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12쪽)는 독자

www.kci.go.kr

스판타지는 각각 전통적인 맥락에서의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라는 젠더화된 취향이 내포된 것으로 협상되었다. 그렇다면 현대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 세 작품이 모두 남성 주인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그저 장르 규범에 충실할 뿐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들은 명백히 현대 판타지 장르에 속하면서도 굳이 ‘남성향’으로 분류될 만큼 남성 독자의 비율이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6] 차라리 주목해야 할 것은, 상당수의 여성 독자를 보유한 세 작품이 현대 판타지의 일반적인 장르 규범

들의 불만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 로맨스판타지는 2015년에 ㈜조아라의 전용 게시판을 얻어 그 모체인 판타지 장르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

6) 더욱이 ‘남성향’이라는 범주는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꼭 읽어보아야 할 논의로는 이융희의 글이 있다(이융희, 「‘남성/여성+-향’이라는 함정」, 『문학광장』, 2026.04.01., https://munjang.or.kr/board.es?mid=a21200000000&bid=0004&act=view&list_no=109716&nPage=1. (접속일: 2026.10.13.)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시장의 구성에 따르자면 남자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는 ‘판타지 소설’은 ‘남성향’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욕망이 다수의 여성 소비자 욕망을 충족시키며 관계 지향적인 서사로 나아간다면 해당 작품을 더 이상 ‘남성향’으로 볼 수는 없으리라. (…) 본질적인 문제는 ‘남성/여성+-향’ 명칭 그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다시 독자에게 명령하듯 재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이융희, 위의 글) 이 글에는 퀴어 이론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지만, ‘남성/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퀴어 이론의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과 공명한다. 한편, 본 논문의 대상 텍스트들은 (1)자기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물론 ‘남성’ 작가만이 남성향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다수의 ‘남성향/여성향’ 텍스트가 ‘남성/여성’ 작가에 의해 ‘남성/여성’ 독자를 향해 쓰여왔다는 세간의 통념과 견주어보면 이 점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2)주제의식 및 서사 진행의 동력이 주인공과 다른 조연들 간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관계성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 점이 실제로 (‘남성향’의 반대항으로서의) ‘여성향’에 기대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지면에서 따로 다루어야겠지만, 이융희의 지적처럼 이러한 관계 지향적 서사를 강조하는 텍스트들이 여성 독자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3)㈜문피아가 제공한 공시 자료(202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세 텍스트의 여성 독자 비율은 각각 41.8%, 71.1%, 51.7%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이 텍스트들을 구태여 ‘남성향 판타지’라는 장르의 맥락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남성향’이라는 신화를 벗겨내기 위한 중요한 텍스트들임을 여러 각도에서 방증한다.

www.kci.go.kr

에 따라 남성 주인공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독자들의 갱신된 젠더 감수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된' 남성성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것은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본격문학'의 장에서 여성 서사와 퀴어 서사가 동시대 한국문학의 주된 흐름으로 부상한 것, 그 과정에서 많은 텍스트가 여성/퀴어 주인공을 조형해 온 것과는 사뭇 비교되는 현상이다. 물론 '본격문학'과 웹 문학의 독자 집단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겠지만, 페미니즘 대중화 자체가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위시한 온라인 페미니즘에 크게 힘입었음을 고려하면 해당 시점 이후에 등장한 인기 웹소설들이 여전히 남성 주인공을 선호하는 현상은 흥미롭다. 둘째로, 세 주인공과 가장 긴밀한 유대 관계로 엮인 상대 또한 여성 히로인(heroine)이 아닌 남성 조연들이다. 이들 모두는 각 작품에서 현대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을 가장 강하게 체현하는 인물들로 묘사되는데, 그러면서도 주인공들과의 로맨스 관계로 미끄러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BL(Boy's love) 장르와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셋째로, 세 주인공은 여성 조연들과의 이성애적·유성애적 결합을 도모하지 않으며, 오직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존중적인 동료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짧게 말해, 이 논문의 목적은 당대의 인기 웹소설인 〈전독시〉·〈내스급〉·〈어바등〉에서 재현된 주인공의 남성성/들에 주목하여, 그러한 남성성/들이 주조되는 서사적 원리를 텍스트 내부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한편, 국내 웹소설 연구에서 젠더/섹슈얼리티 이론을 경유하는 논의들은 대부분 고수위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 장르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7] 그

7) 웹소설 연구가 본격화된 이래로 소위 '여성향' 장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축적됐다. 다만 장르론이나 수용론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어, 대상 텍스트 자체에 젠더/섹슈얼리티 이론을 강도 깊게 개입시킨 연구는 드문 편이다.

www.kci.go.kr

러한 '여성향' 장르들이야말로 페미니즘 이론에 입각한 '여성 주체성' 내지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기에, 나아가 여성 독자들의 독서 욕망을 분석하기에 한결 유리한 영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페미니즘 대중화', '디지털 페미니즘' 등으로 불리는 페미니즘 운동이 촉발한 시기에 형성되고 성장"[8]한 장르로서 광의의 로맨스 장르는 '여성 서사'의 유동성과 확장성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이성애 중심주의·가족주의와 가부장제로의 반동적 경향성·'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성·신자유주의와 결탁한 계급주의 강화 등 로맨스 장르의 위험 요인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것도 로맨스 장르 연구의 특출한 성과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그 밖의 장르를 다루는 연구에서 젠더/섹슈얼리티적 관점을 적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일례로, 유인혁의 한 논의는 책빙의물이 서사적 관습의 갱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하위장르임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러한 책빙의물의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년들"을 재현하고, "이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전망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루저(looser)'의 정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때, '청년'이라는 널따란 기호 앞의 '남성'은 괄호 쳐진 상태다.[9] 현대 판타지 장르의 주인공이 대부분 남성

8) 손진원, 「여자들의 '차가운 분노'와 웹소설에서의 복수 서사」, 『여성이론』 제48호, 도서출판여이연, 2023, 139쪽.

9)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 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92쪽. 실제로, 이 논문의 첫 각주는 책빙의물의 장르규범이 때에 따라 성차화되어 재현되는 양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되, 해당 지면에선 '판타지' 장르에 속한 텍스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로맨스판타지'와 교차된 책빙의물 텍스트들을 제외하고, 통상 '남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통 판타지'만을 다루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것이 '남성 청년'들을 '청년 일반'으로 곧장 환원하는 분석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연구 대상 중 하나인 〈백작가의 망나니가 되었다〉는 여성 독자의 비율이 50.6%(2026년 8월, ㈜문피아 기준)에 달하는,

www.kci.go.kr

으로 정체화한 인물들로 설정되어 왔고, 아직까지 그것이 이 장르의 규범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은 꽤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10] 이 논의는 한국 사회의 남성성 연구를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이 논문의 중추를 이루는 또 하나의 주장, "책빙의물이 사회적 전복의 상상력을 장르의 필수적인 맥락으로 전환"[12]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젠더/섹슈얼리티 관점을 통해 한층 풍부하게 보론될 여지가 있다.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현대 판타지 장르의 세 작품(〈전독시〉·〈내스급〉·〈어바등〉)에 재현된 퀴어한 남성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웹소설에 관한 젠더/섹슈얼리티 연구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기왕의 현대 판타지 장르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남성성'의 문제를 전경화하기 위함이다.[13] 이를 위해,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소위 '중성향' 판타지의 대표 격으로 호출되는 텍스트다(이융희, 『웹소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다, 2023, 184쪽). 다만, 웹소설의 장르 규범과 수용 양상이 매우 빠른 양상으로 변한다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이는 특정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연구의 시차(時差)에 따른 불가피한 관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10) 김기현, 「한국 현대 환상문학 주인공의 인물 유형 연구: 웹소설 판타지장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4쪽 참조. 이 논문은 현대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 157건의 사례 모두에서 남성 주인공이 채택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주인공들의 인물 유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인공이 동일한 젠더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의 분석 대상으로 문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웹소설 연구, 특히 흔히 '남성향'으로 분류되는 현대 판타지 장르 연구에서 젠더/섹슈얼리티 관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11) 안상욱,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12) 유인혁, 앞의 글, 89-90쪽.

13) 현시점에서 국내 웹소설의 남성성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며, 그중 김아란의 최근 논의는 본격적인 남성성 분석을 시도한 매우 드문 사례이다(김아란, 「남성향 웹소설에서 나타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양상—노력·친밀성·우정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6, 207-245쪽).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 시스템 변동과 그에 따른 남성성/들의 변화를 남성향 웹소설의 남성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기획은 매우 시의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흥미롭

www.kci.go.kr

서는 남성성 이론 분야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래윈 코넬과 잭 핼버스탬의 이론을 원용하고, 필요에 따라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 에이드리언 리치, 게일 루빈, 주디스 버틀러, 제인 워드 등 퀴어 이론가들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이때, 본문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 글에서 사용되는 '퀴어(queer)'라는 용어는 누군가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젠더 규범을 뒤흔드는 정치적 실천을 폭넓게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사가 아닌 동사/형용사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개념이다.

먼저, 코넬의 논의는 남성성의 구성성과 복수성이라는 두 전제에서 출발한다. 주지하듯이 남성성이란 단순히 '남성'의 '남성임(maleness)'을 지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젠더 관계로 구조화된 실천의 배치 형태"[14] 그 자체이며, 지극히 역사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 형성된 남성성/들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성성의 복수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다양한 남성성들 사이의 관계, 곧 남성성들이 동맹을 맺고 지배하고 종속되는 관계"[15]에 주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한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 역시 언제나 다른 남성성/들과의 경합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주류 남성성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욕망과 실천의 배치들, "새로운 자아를 만들려고 인격을 재구성하는 개혁 프로젝트"[16]를 상상할 수

다. 다만 이 글은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 역사적 경계성이자 정체성", "남성성과 여성성은 (…) 이성 및 동성 간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구성되는 정체성"(앞의 글, 209-210쪽)이라고 기술하는 등 '남성성'과 '남성 정체성'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친밀성'과 '우정'의 문제를 각각 이성/동성과의 관계에 한정하여 논의함으로써 이성애 중심주의의 한 결과인 사랑과 우정의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있다.

14) 래윈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78쪽.

15) 위의 글, 69쪽.

16) 위의 글, 195쪽.

www.kci.go.kr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은 현대 사회의 젠더 질서 전반을 가로지르는 변혁적인 성 정치, 즉 "탈출의 정치"[17]와 접속된다. 그런가 하면, 핼버스탬은 '여성의 남성성'이 드러나는 사례들을 통해 근대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의 구성에 비-남성들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음을 논증한다. 이는 그간 소홀히 여겨진 "남자 없는 남성성, 특권적이고 지배적인 형태의 남성성이 아닌 '남성적인 것'들의 여러 모습과 가능성"[18]을 목록화하면서, 남성성은 남성(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한 작업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핼버스탬 또한 자기 논의의 말미에서 "이런 남성성의 고쳐쓰기를 남성성의 역사의 일부이자 미래로 인식"[19]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두 사람의 논의는 남성성의 재구성이라는 까다로운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교차한다.

당연하게도 코넬과 핼버스탬은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이원론적 젠더/섹스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남성성의 가장 중요한 참조항으로서 여전히 여성성을 호출한다. 코넬의 주장은 이러하다. "'남성성'은 '여성성'과 견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20] 핼버스탬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범주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퀴어한 존재들을 예시함으로써 대안적 남성성의 다종다양함을 역설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남성성'과 '남성의 여성성'을 반복적으로 병렬하는 수사적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남성성은 다른 남성성들 간의 관계, 그것의 주된 상대항으로 호출되어 온 여성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등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남성성의 구성 원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17) 위의 글, 326쪽.
18) 유강은, 「옮긴이의 말」, 주디스 핼버스탬,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394쪽.
19) 주디스 핼버스탬, 위의 글, 380쪽.
20) 래윈 코넬, 앞의 글, 112쪽.

www.kci.go.kr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을 중층결정하는 세 항과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본론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먼저, 세 편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남성 주인공과 남성 조연의 관계들을 주목한다(2장). 이어서, 세 남성 주인공과 여성 조연의 관계들을 분석한다(3장). 끝으로, 각 남성 주인공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 맺는 방식을 조명한다(4장). 코넬에 따르면, "성 정치는 대중 정치이고, 전략적 사고를 하려면 대중이 어디 있는지"[21]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괄목할 만한 인기를 누린 세 편의 웹소설을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중 서사 양식인 웹소설 내부의 성 정치, 특히 남성성의 재구성 담론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 양쪽과 결별하려는 '퀴어한 남성성'의 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 역시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남성'과 경쟁하지 않는 남성성/들

여느 회빙환 서사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세 작품의 주인공들 역시 현대 사회의 규범적 남성성에 한참 미달한다. 〈전독시〉의 김독자는 어린 시절 "일진들에게 찍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고, "입시를 망쳐 지방 삼류 대학"에 진학했으며, 현재는 "이직을 반복하며 대기업 계열사의 계약직"[22]으로 근무 중이다. 이능력물이자 헌터물인 〈내스급〉의 경우는 더욱

21) 위의 글, 127쪽.

22) 싱숑, 〈전지적 독자 시점〉, 네이버 시리즈(E-book 단행본), 1부 1권. 이후 동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권호만 표기한다.

www.kci.go.kr

노골적이다. 이 세계는 각성자 개인이 보유한 이능력의 종류와 효용도에 따라 S급부터 F급까지 줄 세우는데, 주인공인 한유진은 자신을 "정말 쓸모없는 놈"[23]으로 여기는 F급 헌터다. 근미래 SF물이자 재난물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은 다소 독특하다. 주인공인 박무현은 심해기지의 단 한 명뿐인 치과의사로 막 발령받았으나, 심해기지에 물이 새기 시작한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자기 한 몸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한다. 급기야 그는 이렇게 요구한다. "빠르게 나의 무쓸모를 알아달라."[24]

또 다른 공통점도 있다. 세 주인공은 다른 남성 조연과 각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주인공과 달리 매우 이상적인 남성성을 체현한다. 일례로, 〈전독시〉의 유중혁은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하 〈멸살법〉)의 주인공이다. 회귀자이기에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는 외모와 능력 등 여러 방면에서 우월하다. 〈멸살법〉을 유일하게 완독한 독자인 김독자는 자신이 그 소설 속에 들어왔음을 알고 있기에, 그런 그야말로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계속 되새긴다.[25] 〈내스급〉에는 그런 주인공다운 조연들이 둘이나 있다. 해당 세계관의 절대 강자인 성현제와 한유진의 동생인 한유현이다. S급 헌터인 두 사람은 각각 세성 길드와 해연 길드의 리더로, 모든 방면에서 출중한 인물들로 소개된다. 〈어바등〉의 신해량도 마찬가지

23) 근서, 〈내가 키운 S급들〉, 리디북스, 1권. 이후 동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권호만 표기한다.

24) 연산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리디북스, 4권. 이후 동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권호만 표기한다.

25) 소설로 볼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놈이 얼마나 비범한 인간인지 잘 알겠다.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에 막 돌입하는 상황인데 체근민 합이 70을 넘는다. 거기다 스킬 레벨까지…… 빌어먹을, 이래서 주인공 버프는.(1부 2권)

www.kci.go.kr

다. 그는 심해기지 내 엔지니어 가팀의 팀장이고, "마치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소중한 샘플 같은 귀한 황금비율"(1권)을 가진 과묵한 미남인데다가, 심해기지에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엔 대한민국 정부와 계약한 유능한 용병이었음이 밝혀진다. 사실 헤게모니 남성성은 누구도 완벽히 체현할 수 없는 규범성 그 자체이다. 그런데 현대 판타지 장르의 이 남성 조연들은 그러한 이상적 남성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헤게모니적 남성성 자체가 일종의 판타지적인 규범임을 역으로 드러낸다.

이를 바탕으로 남성 주인공들과 남성 조연들의 독특한 관계성을 두 가지 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텍스트들에서는 남성 주인공과 남성 조연들의 경쟁 관계가 강하게 재구성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년들"[26], 남성성 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헤게모니적 남성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남성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조연들과 대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인공은 자신의 열등한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그의 자리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열등함을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상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예컨대 김독자는 유중혁을 처음 만나자마자 동료가 되기를 제안하고, 실제로 그를 자기 무리('김독자컴퍼니')의 일원으로 끌어들인다.[27] 한유진의 경우는 더 특별한데, 고작 F급인 주제에 '공포 저항'이라는 스킬을 가진 그는 규격 외의 위세를 가진 S급들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국내의 일인자 자리를 다투는 두 남자 사이에서 일

26) 유인혁, 앞의 글, 92쪽.

27) "먼저 두 가지만 말해두지." // "……뭐?" // "하나,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야.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공정히 대해주길 바란다." // "……." // "둘, 내가 당신에게 협력하듯, 당신 역시 내게 협력할 것을 약속해라."(1부 1권)

www.kci.go.kr

종의 삼각관계에 놓인다.[28] 그런가 하면 박무현과 신해량은 상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깊이 신뢰한다. 박무현이 신해량의 탁월한 신체 능력과 리더십 등을 믿는다면, 신해량은 박무현의 인간성 자체를 믿는다. 그래서 모든 재난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 그는 박무현의 치과에 자기 지인을 원무과 직원으로 취업시켜 그의 신변을 몰래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자기 명의의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차리기도 한다.[29]

젠더/섹슈얼리티적 관점에서,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주인공들이 기존의 남성성 분배 구조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판타지 장르인 〈전독시〉·〈내스급〉·〈어바등〉에는 각각 유료화·던전화·수몰 재난이라는, 그들 세계의 멸망을 초래하는 급박한 위기가 있다. 그런 위기들은 그들 세계에 우선되는 가치들을 새롭게 재편한다. 가령 〈전독시〉에서는 높은 등급의 특성과 스킬을 보유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다. 〈내스급〉에선 몬스터를 쉽게 상대할 수 있는 S급 공격계 이능력이, 〈어바등〉에선 재난 상황을 헤쳐 나갈 노하우와 강인한 체력이 곧 유능함의 척도가 된다. 이때, 전술했듯이 각 작품의 남성 조연들은 바로 그러한 한정적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들, 그야말로 그들 세계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육화된 존재들이다. 그러나 세 남성 주인공은 자신들이 응당 욕망해야 할 것,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그다지 진심으로 욕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산뜻한 '기권'은 "대중적 성정치의 가장자리에서 헤게모니적 남성

28) S급 헌터의 충돌 속에 F급인 한유진의 몸이 무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형을 내놔." // 한유현이 냉랭하게 말했다. 마지막 경고에 가까운 어조였다. // "마치 자기 소유물을 돌려달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 성현제가 느긋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었다. // "내게 넘겨주는 건 어떻겠나. 제때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부족함없이 잘 돌봐주겠네."// 애완동물 분양이라도 권하는 듯한 소리였다. 한유현의 이가 으득 갈렸다.(4권)

29) "2층 공실에 종합격투기 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 "신해량 씨가 거기 관장인 모양입니다." // 미친 용병 새끼들이 퇴직하면 죄다 이 건물에 살려고 하나 보다.(17권)

www.kci.go.kr

성에 관한 급진적 부정을 순간순간 반짝이는 방식으로 실현"[30]하는 '탈출의 정치'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주인공들은 조연들의 우월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우월한 존재로,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배치하는 기존의 규칙 자체를 변형한다. 예컨대 김독자에게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유일무이한 스킬이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주인공(유중혁)보다 독자(讀者)가 더 강한 행위 주체성을 발휘하는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31], 주인공의 자리를 탐내지는 않는다.[32] 「왕이 없는 세계」 에피소드(1부 3권)에서, 그는 왕의 자격을 얻고도 '절대 왕좌'를 독차지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절대 왕좌'에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1부 3권) 알고 있는 그는 그 왕좌를 부숴버림으로써 "왕이 없는 세계의 왕"(1부 3권)이라는 아이러니한 별칭을 획득한다.[33] 특정한 누군가가 왕으로서 군림하고, 나머지는 그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권력의 독점 구조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유진에게는 S급들에 대한 위압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공포 저항' 스킬과 '사랑한다'는 키워드를 통해 상대를 감화시킬 수 있는 '내 새끼가 최고' 스킬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S급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한다. 특히 '살벌한 병아리반 선생님' 스킬을 통해 자신에게 감화된 이들과 하나의

30) 래윈 코넬, 앞의 글, 326쪽.
31) 지금 나는 이야기를 듣는 쪽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쪽이었다.(2부 4권)
32)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난 주인공이 아니라 독자잖아."(4부 5권)
33) "그러니 나는 '절대 왕좌'에 앉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 그리고 거의 동시에, 칼을 뽑아 들었다. // "다른 사람이 왕좌에 앉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앉는다는 것은, 곧 누군가는 앉지 못한다는 뜻이다. (…) "대체 언제까지 도깨비들의 '시나리오'에 무력하게 끌려다닐 겁니까? 누군가가 '절대 왕좌'에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들은 정말 모르는 겁니까?" // 한번 '복종'에 길든 사람들이 그 '복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1부 3권)

www.kci.go.kr

신경망을 공유하면서 마치 한 몸처럼 몬스터에게 맞서는 협동 전략을 구사할 때, 그는 S급보다 강해지지 않고도 여전히 '평범한' F급으로서 모두의 후방에서 S급들을 '통솔하는' 위치가 된다.[34] 박무현의 경우, 그에게는 심해 3,000미터에서 살아 나가기 위한 생존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자신이 '무쓸모'한 치과의사라는 사실을 열등감으로 치환하는 대신, 그 무쓸모함을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 기준이 한순간 달라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또 그는 5월 31일이라는 하루를 반복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자기가 아는 약간의 미래를 모두에게 공유하고, 다 함께 심해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독려한다. 서로에게 이기적으로 굴기보다는, "대가 없이 서로를 도와야"[35] 오히려 모두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난다. 이처럼 세 주인공은 기존의 경쟁 체계 내부에서 유일한 승리자가 되는 대신, 경쟁의 규칙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주인공다움을 확보해 나간다.

남성 주인공과 남성 조연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독특성은 그들 사이의 성적 긴장에 관한 것이다.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전독시〉·〈내스

34) 「살벌한 병아리반 병아리반 선생님(SS) - **제멋대로인 각성자들을 통솔하는 선생님!** 애들이 참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굴지요? 하지만 걱정 마시라! 이 스킬을 쓰시면 다수의 대상자를 깊게 연결, 스킬 사용자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동이 가능함.」(4권, 강조는 인용자)

35)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내가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독점하고 혼자 이득을 취해봤자 결국엔 시체만 양산할 뿐이다. (…) "각자가 가진 이기심을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고, 최대한 주의의 사람을 도와가며 이 재난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손익과 합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가 없이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5권)

www.kci.go.kr

급〉·〈어바등〉은 본격적인 BL 장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재 플랫폼상에서도 현대 판타지 카테고리에 소속돼 있지만, 각 작품의 구체적인 면면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BL 장르는 공(攻)과 수(受)의 일대일 로맨스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주요 연재 플랫폼의 인기 순위에서 바로 알 수 있다시피 '씬(scene)'이라고 불리는 두 주연 간의 성행위 장면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상기한 세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섹슈얼리티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 작품에서 남성 주인공과 남성 조연 간의 성적 긴장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김독자는 사실 유중혁을 누구보다 아끼는 인물이다. 비록 김독자를 제외한 모든 독자를 잃은 '망한 소설'이었지만, 김독자는 유중혁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멸살법〉을 완독할 수 있었다. 어린 김독자는 소설 속 멋진 주인공인 유중혁이 되고 싶었다.[36] 일진들에게 맞고, 따돌림을 당하던 학창 시절에 그는 오직 이 생각만으로 버텼다. ""나는 유중혁이다……나는 ……."//수만 번도 더 외웠던 그 주문. (…) 「'유중혁처럼 되고 싶다.'」 (…) 「이 우주의 그 누구보다 강한 주인공.」"(5부 1권)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동일시적 욕망과 친밀성의 욕망은 본래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다. 실제로 〈전독시〉에서는 그가 유중혁을 사칭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고, 김독자와 유중혁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색깔만 다를 뿐인 동일한 코트를 입고 다니기도 한다. 이처럼 김독자와 유중혁의 관계는 매우 특권적으로 연결돼 있다. 무엇보다 김독자가 자신을 희생해 세계를 구원한 후 영원

36) 아이는 얼굴을 파묻은 채 같은 말을 반복했다.//"나는 유중혁이다. 나는 유중혁이다. 나는……."//희미하게 비치는 빛살 속에서 아이가 몸을 떨었다.//[너는 유중혁이 아니다.]//억겁의 회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잊었던 회귀자.//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내가 유중혁이다."(5부 1권)

www.kci.go.kr

히 혼자 되기를 택했을 때, 오직 그를 구하기 위해 또 한 번의 회귀를 택하는 유중혁의 모습은 결정적이다. 더구나 유중혁이 BL 장르의 전형적 인물 유형인 '광공'의 조건을 얼추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면[37], 이러한 결말은 강압적인 성격과 반사회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광공'이 끝내 주인공에게 매료되어 이전과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는 BL 장르의 한 서사적 문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전독시〉 팬덤 내부에서는 유중혁과 김독자의 커플링(coupling, CP)을 2차 창작으로 생산·소비하는 흐름이 꾸준히 이어져 오기도 했다.

자기 몸에 마석을 심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거나 마수들을 길들이는 능력을 가진 한유진은, 성현제와 한유현의 일부를 이어받은 생명체인 '한결이'와 '한설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는 판타지 장르의 환상성에 기대어 일종의 남성 출산을 재현한 장면들이다. 성현제는 툭하면 "무엇보다 한유진 군은 내 아이를—"(3권) 따위의 농담을 던지고, 한유현은 자신의 형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것 또한 관련지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팬덤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의 대목이다. "형, 진짜 내가 미치는 꼴 보고 싶어?"(3권) 이 대사는 일명 '형내미꼴'이라는 밈(meme)으로 변형·전파됐다. 이는 한유진과 한유현의 관계가 우리 사회의 젠더 규범에서 일반적인 형제 관계에 기대되는 친밀성의 강도를 명백히 초과했음을 보여준다. 성현제와 한유진이 서로를 하나뿐인 '파트너'로 부르는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내스급〉의 연재 기간에는 한유진에 대한 한유현의 집착이 다소 과하다는 독자 후기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내

37) 물론 유중혁이 광공의 전형적인 특징을 전부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소위 '딱뚝콱'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광공'의 한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논의를 참고하라. 한아름, 「국내 웹콘텐츠 BL장르의 남성캐릭터 연구」,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김예지, 「BL 문화에서 키워드가 가지는 정형성: '광공'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94집, 한국비교문학회, 2024, 25쪽.

www.kci.go.kr

스급〉이 현대 판타지의 장르 규범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유현과 한유진의 형제 관계가 BL 장르의 하위물인 '근친물'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었다. BL 장르에서 '근친물'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이너한 취향으로 다뤄지기는 하지만, 엄밀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탈적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근친물'이라는 카테고리 하에서 은밀히, 폐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이 지켜질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근친물'이라는 해시태그가 제시되지 않은 텍스트에서 근친상간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곧장 장르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38] 또 역으로 말해, 그렇다면 〈내스급〉을 '일반적인(normal)' 형제애와 일탈적인 형제애 사이를 넘나드는, 형제 관계를 둘러싼 친밀성의 규범에 도전하는 텍스트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바등〉에서 살펴볼 장면은 2권 후반부의 「계단」 에피소드다. 신해량과 박무현을 비롯한 몇몇 인물은 비밀 계단을 통해 심해기지에서 탈출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다 박무현이 한순간 발을 헛디디자, 신해량은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라피스라줄리 목걸이를 풀어 그에게 건넨다.[39] 형광물질을 발라둔 목걸이인 만큼, 어둠 속에서 약 4,300개에 달하는 계단을 올라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그 목걸이에 담긴 전사(前事)다. 그것은 신해량이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전 연인과 맞춘 커플 목걸이로, "원석이 깨질 때까지 목에 걸고 다니자고 약속"(2권)했던

38) 재밌는 것은, 한유진과 한유현의 지나친 친밀성을 문제 삼는 독자들의 상당수가 근친상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제기하기보다는 '근친물'에 대한 호불호나 〈내스급〉이 위반한 장르 규범에 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39) 박무현은 동성에게 장신구를 선물 받는 상황을 당황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그러한 방어적인 태도야말로 이 상황이 남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질 만한 일이 아님을 방증한다. "남자가 내게 목걸이를 주려는 얼떨떨한 상황에 몸을 뒤로 빼며 눈살을 찌푸렸다.//"굳이 이렇게까진 안 해도 되는데요."//"빌려드리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면 돌려주십시오."//신해량의 목걸이가 곧 내 목에 끼워졌다."(2권)

www.kci.go.kr

물건이다. 그러니 박무현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이 어둠을 벗어나면 바로 돌려주기로 약속한다.[40] 하지만 그는 심해 3,000m에서 뭍까지 올라오는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까지 그 목걸이와 줄곧 함께한다. 그리고 신해량이 이끄는 "엔지니어 가팀 모두에게 탈출의 기회가 한 번 이상 주어진 게 아닌가"(14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박무현의 손에 쥐어져 있던 목걸이가 갑자기 부서진다. 이것은 계곡에 빠진 애인을 구하지 못한 과거의 어떤 날부터 신해량이 내내 간직해왔을 죄의식이 드디어 만료되었음을, 그 안의 애도가 완수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읽힐만하다. 아닌 게 아니라, 신해량은 목걸이가 파손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언젠가 깨질 거라 예상했습니다."(16권) 연인과 사별한 남자가 그와의 증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한 상황치고는 담백한 반응이다. 이 장면에서 박무현과 신해량 그리고 신해량의 전 연인으로 구성된 삼각관계가 연상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박무현이 그의 새 연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연인과 나누었던 친밀성의 증표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박무현의 손안에서 부서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바등〉은 두 인물 간의 로맨스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친밀성의 흔적들을 거듭 제시한다. 〈어바등〉 팬덤 안에서 〈해량무현 배포전〉이라는 2차 창작물 교류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41]

---

40) "내 상담사가 목걸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더군. 정신건강을 위해 팔거나 버리라고 하던데. 어차피 그건 내 거야. 누구에게 빌려주든 내 목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깨지기 전까진. 지금은 불빛이 필요해서 무현 씨에게 빌려준 거고."//맞긴 한데. 내가 목에서 시퍼렇게 빛나는 빛을 보면서 당장 벗어서 건네면 실례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자, 신해량이 말했다.//"어둠을 벗어나면 돌려주십시오."//"……예. 신속하게 돌려드릴게요."(2권)

www.kci.go.kr

정리하자면, 남성 주인공과 남성 조연의 관계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편성된 남성동성사회의 경쟁적인 관계성과 남성동성애의 로맨틱한 관계성 중 어느 한쪽으로도 확실하게 기울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해, 이들의 관계는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경쟁하는 관계이고, 로맨틱하지 않으면서도 로맨틱한 관계이다.[42] 사실상 세 작품은 남성 간 관계에 존재하는 두 층위의 문제 모두를 퀴어링(queering)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 작품이 남성 간 경쟁과 남성 간 친밀성의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 양상은, 남성동성사회적인 욕망과 남성동성애적인 욕망은 배타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범주들이 아니며 기실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는 세즈윅의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43]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연속성이 잘 가시화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남성 동성애 패닉(male homosexual panic)이다. 이는 남성 간 친밀성이 남성 동성애로 오인될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불안이며, 그 기저에는 자신이 삽입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여성혐오적인 공포가 자리한다. 그런데 〈전독시〉·〈내스급〉·〈어바등〉의 남성 주인공들과 남성 조연들은 서로에 대한 과도한 거리두기를 행

41) 주최 측의 블루스카이 공식 계정(@haemu-share.bsky.social)에 따르면, 〈해량무현 배포전〉은 2025년 2월 15일과 2026년 2월 7일에 개최되었고, 2027년 5월 22일에도 3회 행사가 개최 예정돼 있다. 이 행사에서는 박무현과 신해량의 관계를 BL 장르로 전유한 2차 창작물만 유통된다.

42) '노맨스 서사'를 즐겨 읽는 여성 독자들의 CP적 감상 문화를 연구한 최근의 한 논의를 보면, 심층 면접 참여자 총 6명의 주요 감상 작품에는 〈전독시〉(4명), 〈내스급〉(3명), 〈어바등〉(3명)이 포함돼 있다. 이 논문은 세 텍스트의 '모호한' 남성 간 관계가 BL 장르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희, 「욕망과 규범의 교차점: 노맨스 남성향 판타지 웹소설 여성 독자의 CP적 감상 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40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5, 247-248쪽 참조.

43) Eve Kosofsky Sedgwick, "Introduction", ***Between 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p.1-15.

www.kci.go.kr

하지도, 서로에 대한 친밀성을 동성애 혐오적인 표현으로 희화화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본격적인 로맨스 서사에 돌입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친밀성을 기꺼이 누린다. 따라서 세 작품 속 남성 인물 간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퀴어한 남성성'의 한 가지 측면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그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강요하는 경쟁 질서를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의 친밀성을 과히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정과 사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성애 중심주의의 규범을 흔든다.

3. '여성'을 소유하지 않는 남성성/들

세 작품의 남성 주인공들이 모두 여성과의 연애 경험이 없는 인물들로 설정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서사 안에서 여성 인물과의 명확한 로맨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장 이들의 '퀴어성(queerness)'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근거 삼아 김독자·한유진·박무현의 섹슈얼리티를 무성애자나 게이 등 특정한 정체성 범주를 통해 포획하려는 분류학적 시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라는 강력한 규범에서 얼마간 성공적으로 이탈해 있다는 점이다. 강제적 이성애라는 개념은 여성의 이성애 실천이 "'선호'가 아니라 힘으로 강제, 관리, 조직, 선전, 유지"[44]되어 왔다고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다만, 남성들 역시 강제적 이성애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기에, 이 개념은 남성성 분석에서도 효과적으로

44) 에이드리언 리치,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이주혜 역, 바다출판사, 2020, 261쪽.

www.kci.go.kr

활용될 수 있다.

강제적 이성애가 남성들에게 부여하는 강력한 규범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단 하나의 선천적 지향성—여성에게 끌리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45] 이 이성애·유성애 중심적인 믿음은, '진정한' 남자에게는 언제나 보상으로서의 여성이 주어지기 마련이라는 헛된 약속으로도 곧잘 미끄러진다.[46] 이때, 남성은 여성 거래의 주체로서 자기 위치를 정당하게 승인받지만, 남성들 간의 거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여성은 그저 타자의 위치에 머물게 된다.[47] 여성은 남성성 외부의 타자로서 남성성의 성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호출될 뿐이다. 이 논리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기 몫의 '여성'을 소유하지 못한 남성은 다른 남성들에게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한 남성은 더 이상 여성 거래의 주체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타자로서의 '여성'에 의존하는 남성성의 근본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 관점에서 세 작품을 다시 볼 때, 김독자·한유진·박무현이 여성 조연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남성성은 상당히 흥미롭다. 상술했듯이 이들은 이성과의 연애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이성애 실천에 대한 특별한 강박을 느끼지 않는다. 김독자는 나머지 두 주인공에 비해 이성애를 실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편인데, 그런 그조차도 미인인 직장 동료(유상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 마음 졸이는 남자들 심정도 조금 이해는 된다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였다. 무릇 사람이란 제각기 삶의 장르가 정해져 있는 법이고, 유상아는 나와는 다른 장르를 살아가는

45) Alice Rossi, "Children and Work in the Lives of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February 1976. 에이드리언 리치, 위의 글, 237쪽에서 재인용.
46)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2, 32-33쪽.
47) 게일 루빈,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현실문화, 2015, 110쪽.

www.kci.go.kr

인간이니까."(1부 1권) 이와 같은 태도는 작품 내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데, 후반부에 이르러선 김독자의 불운한 과거사를 들은 유상아가 먼저 손을 잡아 오는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김독자와 유상아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얼마 뒤 당사자인 유상아가 "음,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저런 적도 있었지 참."(5부 2권)이라며 별일 아닌 일로 축소하기도 하지만, 다른 여성 조연인 정희원의 입을 통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다. "야야 한수영, 절친한 동료끼리 손 정도야 잡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5부 2권) 이 장면에서 〈전독시〉는 남성과 여성의 친밀성이 곧장 상호 독점적인 연애 서사로 회수되어야 한다는 이성애·유성애 중심적인 규범을 텍스트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유예한다. 한유진과 박무현의 경우는 더욱 간결하다. 한유진은 아이들과 마수들을 돌봐야 하는 자신은 "애초에 연애 같은 거 할 생각이 없"(22권)으며 "연애 같은 걸 하기엔 여러모로 부족"(26권)한 형편이라고 주장한다.[48] 또, 박무현은 자신의 연애 경험을 묻는 말에 "먹고살기에 바빴습니다."(9권)라는 한마디로 간단히 갈음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49]

이처럼 세 작품에서 남성 주인공은 여성 인물과의 연애를 자신의 성장,

48) 한유진이 연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주장하는 장면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애초에 난 연애 같은 거 할 생각 없다니까."(19권);"아니라니까, 서른이고 스물다섯이고 연애고 결혼이고 안 해."(19권); "연애고 뭐고 할 기운 없다."(19권); "아니라고, 진짜 연애 안 한다고."(19권); "저도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설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유현이와 예림이가 우선이고요. 그러니 할 생각 없습니다. 예의가 아니잖아요."(19권); "몇 번이고 말했다만 난 애초에 연애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어."(22권); "아무튼 전 연애할 형편도 못 되니까요. 고맙긴 하지만 거절해야죠."(26권); "역시 난 연애 같은 걸 하기엔 여러모로 부족했다."(26권)

49) 조셉은 자기 옆에 있는 구원자가 연애 중이 아니라는 것에 책임감이라도 느끼는 중매쟁이처럼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안달이 난 거 같았다. 조셉과의 대화를 끊기 위해 나는 신해량을 끌어들였다.//"제 이야기 말고 옆에 있는 해량 씨에게도 좀 물어보십시오."(9권)

www.kci.go.kr

성취, 성숙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여성과의 관계를 담보 삼아 '진정한' 남성으로 인정받는 이성애적·유성애 중심적 경로를 따르는 대신, 이성애 실천을 통해 남성성을 승인받는 체계 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언뜻 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한 인물들이 자기 젠더에 주어진 규범을 비수행하는(undoing) 것은 자신의 '정상성'을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행위이다.[50] 물론 이러한 특징에는 현대 판타지 장르의 특수성도 부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주인공은 연애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르적 조건이 여성을 남성성의 획득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선택과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세 남성 주인공이 확실한 히로인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명사로서의 퀴어(queer)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그다지 퀴어한 독해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모든 퀴어가 본질적인 퀴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적 이성애의 강력한 규범으로부터 얼마간 이탈해 있고, 여성과의 관계에서 유해한 남성성(toxic masculinity)을 체현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이 남성 주인공들에게서 발견되는 '퀴어한 남성성'의 한 가지 특징은 오히려 이성애와 관련돼 있다. 퀴어와 이성애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여하한 정상성 규범과 불화하는 젠더/섹슈얼리티 차원의 정치성을 퀴어함으로 읽는다면 기실 이성애야말로 퀴어한 개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다. 이에 퀴어 이론의 언어를 경유하자면, 강제적 이성애에 속박되지 않은 세 주인공에게는 퀴어한 이성애 또는 "깊은 이성애성"[51]의 실천 가능성이 엿보인다. '깊은 이성애성

50) 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180쪽 참조.
51) 제인 워드, 『이성애의 비극』, 노지양 역, 라우더북스, 2026, 293쪽.

www.kci.go.kr

(deep heterosexuality)'은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립이나 위계가 아니라 동일시와 깊은 상호 존중" 52)이 자리해야 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얼핏 지나치게 자명한 의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유명한 표어인 '여성에 동일시하는 여성(woman-identified-woman)'에서 착안한 이 개념에는 남성에게 자신의 '남성임(male-ness)'을 내려놓도록 제안하는 급진적 관점이 포함돼 있다. 깊은 이성애를 실천하기 위해 남성성을 승인해 주는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질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안의 남성 동일시를 중지하자는 것이다.53) 어쩌면 이것은 그저 '착한 남성'이 되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남성 지배의 오랜 질주에 제동 장치를 잡아당기는 한 혁명적 방식을 제안하는 것일 수 있다.54)

위의 내용을 비교적 더 잘 보여주는 인물들은 한유진과 박무현이다. 이들은 가장 내밀한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내적 독백에서조차 다른 여성 인물을 타자화하는 관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가령 〈내스급〉에는 문현아, 리에트, 강소영, 박예림 등 다양한 개성을 지닌 여성 인물이 등장하지만, 장장 35권에 달하는 긴 분량에서 한유진이 그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박무현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다. 그는 2회차 회귀에서 유금이, 이지현, 김가영 등 여러 여성 인물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다 아서 굿맨이라는 남자를 제압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육탄전을 벌이는데, 간신히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카누'라는 남자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

52) 위의 글, 293쪽.

53) 제인 워드의 이 논의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선언문」을 강하게 참조한다. "여성을 욕망한다는 것은 "남성 동일시" 즉 가부장적 이해관계를 지지하고, 이익을 얻고, 정당화하며, 그 체제에 공모하는 태도에서 멀어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위의 글, 306쪽.)

54)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최성만 역, 길, 2008, 356쪽 참조.

www.kci.go.kr

"이거 누구한테 맞은 거지? 여자들은 얼굴이 멀쩡한 거 보니 네가 싸웠나 본데 남자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 뭔가 오해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도대체 내 얼굴이 얼마나 터졌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오늘 전까진 남을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었다. **그리고 부상 정도라면 철제 의자로 맞은 유금이나 이지현이 더 심할 거고, 김가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염산을 붓느라 손을 얼마나 다쳤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 "……저는 부끄러울 정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사람들이 제가 맞은 것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에요.**"(4권, 강조는 인용자)

하필이면 굿맨(goodman)이라는 아이러니한 이름을 가진 남자는 몸이 단단히 붙들린 상황에서조차 "죄다 여성에 대한 욕"(4권)만을 입에 올린다. 그런 그에게 맞서 유금이, 이지현, 김가영과 박무현이 함께 싸운 장면은 그래서 더 인상적이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카누는 박무현과 여성 인물들의 부상 상태를 근거로 곧장 자기만의 해석을 만든다. 누군가와의 싸움이 있었다면 그 싸움의 선두는 남자인 박무현이었을 것이며, 여자들은 보호받는 존재여야 하기에 응당 그랬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무현은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사람들이 제가 맞은 것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에요"(4권)라고 말하면서, 그 싸움에서 자신이 맡았던 몫을 겸허히 말할 뿐 아니라 여성 인물들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언급한다. 또, 동일한 현장에 있었던 여성 인물들의 부상 상태를 사려 깊게 헤아리면서도, 끝내 "짐작이 가지 않는다"(4권)고 결론지음으로써 여성의 경험을 섣불리 대리 서술하지 않는다. 이러한 박무현의 태도에서 '여성에 동일시하는 남성'의 구체적인 일면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가 여성 인물들과 맺는 관계들 자체를 워드의 제안과 겹쳐볼 수도 있다.

워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성애자'가 아니라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www.kci.go.kr

갖는 것은 여성을 향한 욕망의 확장을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55]이다. 물론 동성사회 내부에서 유통되는 젠더 규범을 무심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퀴어링하려는 실천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한 장면에서 다른 남성 조연으로부터 이러한 시비를 듣기도 한다.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 여자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냐?"(4권) 어째서 동성인 '우리' 남자들보다 이성인 여자들에게 더욱 친밀성을 보이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분명 박무현에게 "상처를 주는 말(injurious speech)"[56]이다. 또한 이것은 페미니즘을 실천하려는 남성들이 자주 듣는 비난 중 하나로, 사실상 남성동성사회의 규칙을 상기시키려는 경고이기도 하다. 남성성은 남성 주체들만이 승인해 줄 수 있는 남성동성사회의 성원권이기에, 그 사회가 인정하는 규범적 남성성의 틀에 순응하지 않으면 누구든 그 성원권을 박탈당하고 '남성'이라는 범주에서 탈락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무현은 다음과 같이 바로 되묻는다. "넌 왜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냐?"(4권) 이 단호한 되받아침을 통해 그는 여성에 대한 적대를 남성성의 조건으로 삼는 남성성의 젠더 규범 자체를 곧장 문제화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가 자신에게 가한 규범적 판단의 언어를 되돌려 사용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숙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주디스 버틀러가 제안한 재의미화(resignification)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57] 따라서 이 장면은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여성과 상호 존중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남성들이 그러한 태도를 남성성의 결핍으로 간주하는 기왕의 젠더 규범에 대응하고, 나아가 그 규범의 판단 기준을 전환하는 한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이 방법은 여성에 동일시함으로써 여성과의 상호 존중적 관계를 맺고

55) 제인 워드, 앞의 글, 318쪽.
56) 주디스 버틀러, 『혐오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13쪽.
57) 위의 책, 9-93쪽 참조.

www.kci.go.kr

자 하는 남성들이, 그러한 태도를 남성성의 결핍으로 간주하는 기왕의 젠더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세 작품의 주인공들이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퀴어한 남성성'은 '퀴어한 이성애'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첫째로, 그들은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여성과의 연애에 대한 특별한 열망을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로, 이들은 특정 여성 인물을 자신의 히로인(heroine)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내적 독백에서마저 여성에 대한 타자화를 의식적으로 경계한다. 셋째로, 그들은 자기 주변의 여성 인물들을 보호 대상으로서의 '여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의 주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의 영향권 바깥에서의 상호 존중적 관계를 만든다. 다시 말해, 세 작품은 여성을 남성성의 승인 장치로 동원하지 않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동일시와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강제적 이성애의 규범을 거부하는 깊은 이성애, 즉 '퀴어한 이성애'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4. '다르게' 희생, 양육, 반성하는 남성성/들

2장에서는 남성 주인공과 남성 조연, 3장에서는 남성 주인공과 여성 조연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세 주인공의 퀴어한 남성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장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세 주인공이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세계의 파국에 대응하는 방식들과 그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퀴어한

www.kci.go.kr

남성성의 또 다른 측면들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스스로 구축한 공동체의 조력에 힘입어 자신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선다. 질러 얘기하자면, 이들은 세계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희생, 양육, 반성을 둘러싼 규범적 남성성의 문법을 변형한다. 또 게일 캐리거의 제안에 따르면, 그러한 양상들은 사실 여성 영웅 서사의 일종으로 읽힐 수도 있다.[58] 그러나 "생물학적인 성별 특성은 주인공이 남성 영웅인지 여성 영웅인지와 관계"[59] 없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했음을 참작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인물들에게 "'여성적'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60]엔 여전히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관계될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한 인물이 소위 '여성적인' 서사를 끌어 나간다면, 그것은 매력적인 젠더 횡단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비남성 영웅 서사나 퀴어 영웅 서사"[61]로 불리는 편이 더욱 합당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세 주인공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휘하는 주된 행위성들을 젠더/섹슈얼리티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독시〉의 김독자는 "일행들을 위해 몇 번이나 자신을 희생하고"(5부 2권), 결말부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49%와 51%로 나누어 그중 후자를 영원한 독방에 가둬놓는다. 한 세계의 탄생과 지속은 그 세계를 읽어주는 이를 필요로 하기에, 그는 세계와 독자(獨自)적으로 분리된 독자(讀者)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럴 때 그는 비교적 전형적인 '남성 영웅 서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주로 혼자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시점이 멀어지면서 강렬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58) 게일 캐리거, 『여자는 우주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송경아 역, 원더박스, 2025, 6-7쪽 참조.
59) 위의 책, 11쪽.
60) 정윤영,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시공간성 연구—실패한 유토피아에서 반-디스토피아로」, 『대중서사연구』 제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473쪽.
61) 위의 글, 473쪽.

www.kci.go.kr

는 이미 "자기가 구한 세계에 도로 어울리기에는 너무 강력해져"[62]버려서 더 이상 그 집단 속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김독자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일행들이 이번에는 그들의 힘으로 김독자를 구하겠다고 결정할 때, 다시 말해 김독자가 만든 결말이 그의 공동체에 의해 거부될 때, 주인공을 잃고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5부 2권)

> 이렇게 될 리가 없었다.//「"틀림없어. 김독자는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어째서.//「"다시 한번 더 뛰면,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왜?//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끝나야 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확히는 그들이 '끝내지 않기로' 선택했다.//「[성흔, '집단 회귀 Lv.1'를 발동합니다!]」(5부 2권)

그런 순간에 김독자의 위치와 상황, 즉 그의 주인공으로서의 위상학적 자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모든 존재가 누군가의 '읽기'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나를 읽어주는 존재도 어딘가 있는 걸까?"(5부 2권) 그의 재귀적 예언대로, 이제 그는 읽는 자가 아니라 읽히는 자가 된다. 더는 어떤 능동성도 발휘할 수 없이 취약해진 상태, 다른 이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절대적 수동성의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것은 김독자의 자기희생이 남성 영웅의 완전무결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하는 나르시시즘적 희생과 구분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그 희생으로 인해 그가 공동체에 의한 구원의 대상으로 재위치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초월적 영웅성을 획득하는 대신, 공동체

62) 게일 캐리거, 앞의 글, 10-11쪽.

www.kci.go.kr

의 돌봄을 강력히 요청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남성 영웅의 규범성과 힘껏 멀어진다. 또한 그가 슬리핑 뷰티(sleeping beauty)를 연상하게 하는 '전통적 여성성'의 위치에 놓이며 공동체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환될 때[63], '집단 회귀'를 선택한 그의 일행들이 한 명의 주인공이 독점하고 있던 행위 주체성을 나누어 가지면서 세계에 대한 정당한 지분을 획득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들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기로' 선택"(5부 2권)한 순간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다움'이 그들에게 평등히 분배되는 것이다. 이는 주인공이 독자적인 자기희생으로 세계를 구원하고, 그 대가로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함을 획득하게 되는 전형적인 남성 영웅 서사의 결말을 비튼 결말이다.

한편, 〈내스급〉의 한유진은 전설급 칭호인 "'완벽한 양육자'"(1부 1권)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한유진은 양육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심문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유현은 어릴 적부터 그들의 부모조차도 "이상한 것"(4권)으로 취급할 만큼 "사회의 틀"(17권)에 들어맞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다. S급 중에서도 '태생 S급' 헌터인 그는 "드물게 태어나는 특이점 중에서도 홀로 서는 성질"(10권)을 가졌기에 자신의 형 외의 누구에게도 친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64] 이때 한유진이 제 칭호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하는 다음의 대목은, 정상 규범과 불화하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퀴어한 양육자'의 가능성을 암

63) Jeanyfer Tanusy & Trisnowati Tanto, "Female Traditional Gender Roles in the Brothers Grimms' Sleeping Beauty: an actantial model analysis", ***Lire Journal*** Vol.7 No.1, 2023, pp.39.

64) '한유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본래 그는 어느 것과도 어울리지 않게 태어났다. 드물게 태어나는 특이점 중에서도 홀로 서는 성질이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이, 주위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불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도 신경 쓰지 않으며 극도로 자유롭게 타오르는 것이 그의 본성이었다.(10권)

www.kci.go.kr

시하는 장면으로 읽힌다.

> **문득 완벽한 양육자라는 게 맞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동생을 돌봤다.//**하지만 그 최선은 결국 내 기준이었다. 정확히는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내가 아는 사회의 틀에 맞추어 동생을 밀어넣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회의 틀에 맞추지 못했다면 잘려 나가는 것은 한유현이었겠지만. 그래도. (…) "유현아.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 동생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오리 알을 품은 닭이 연못으로 들어가는 새끼 오리를 보고 기겁하듯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내가 알고 있고 살아가는 세상은 흙과 풀을 헤집는 것이니까. 사람과 어울리고 친구를 만들고 연애도 하고 가정과 아이를 가지고 늙어가는.**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네가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든 바꿔 놓아야 하는 게 아닐까. 내 동생인데. 라는 생각이 이따금 든다." (…) 완벽한 양육자는 무슨. 또 실수할 거고, 고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할 것이다.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된 행동이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 없겠지.//그저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17권, 강조는 인용자)

"사람과 어울리고 친구를 만들고 연애도 하고 가정과 아이를 가지고 늙어가는"(17권) 세계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 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피양육자를 규범적 틀에 맞추어 교정하는 대신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자 한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부모의 부재 상황에서 아버지와 형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온 그가 양육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두고 자신의 오류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다. "완벽한 양육자는 무슨."(17권)이라는 한마디 대사를 통해 양육자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할 때, 양육은 비로소 규범적 사회화를 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상호 간

www.kci.go.kr

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 쌍방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실천으로 재구성된다. 이에 그는 긴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대답을 완성한다. "완벽한 양육자. 아니, 양육자." "그 칭호가 품은 힘은." "소중한 이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원. 양육자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자기 자신이 바라는 모든 길을."(35권)

심지어 그는 자기 형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삼촌의 학대에 시달리던 10대 소녀 박유림과 누나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던 노아, 어린 용종과 요정들, 심지어 다양한 개성을 지닌 마수들까지 널찍이 끌어안는다. 이처럼 혈연·젠더·나이·국적·종족 등 다양한 문제를 초월한 그의 양육은 사실상 '난잡한 돌봄'에 가깝다.[65]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유진을 초대 소장으로 둔 '도담 사육소'로, '고작 F급'인 그를 중심으로 모인 S급 헌터들은 서로의 동료가 되어 세계의 멸망에 맞선다. 그와 같은 S급들의 협동은 기실 한유진의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에 가까웠을 이례적인 일이다. 그들은 S급으로 각성한 순간부터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이질적인 존재들로 취급받는데, 그런 그들끼리도 유대감을 갖기는커녕 적대시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66] 그러므로 전통적인 '부성애'와 '모성애' 그리고 '형제애'의 범주를 넘어, "달라도 괜찮겠구나~하는 안정감"(34권)을 줌으로써 그들을 뭉치게 만드는 한유진의 돌봄 역량은 사실상 세계 종말을 막아내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모두

65) "난잡한 돌봄은 **어머니나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돌봄 역량을 가지고 있고**, 서로 함께 돌봄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역, 니케북스, 2021, 85쪽, 강조는 인용자.

66) 하지만 S급은 드물었고 서로의 유대감 또한 적었다. 오히려 적대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우리 진이를 보고 있으면 달라도 괜찮겠구나~하는 안정감을 준단 말이지. F급이 태생 S급을 저렇게나 평범하게 대하니까.** 한유현이 S급 중에서도 유독 비인간적이라서 더더욱 그래."(34권, 강조는 인용자)

www.kci.go.kr

의 '아빠'이자 '형'이자 '삼촌'이자 '아저씨'가 되어 난잡한 돌봄을 실천하는 새로운 양육자 모델, 이것이 한유진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휘하는 퀴어한 남성성이다.

마지막으로, 〈어바등〉의 경우를 살피기 위해선 이 작품의 전반적인 서사구조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전독시〉나 〈내스급〉의 주인공은 한 차례의 빙의 또는 회귀를 경험한 후, 해당 회차에서의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어바등〉의 박무현은 다르다. 그는 총 다섯 번의 회귀를 반복한다. 또 그러한 반복된 회귀는 박무현 개인의 능력치를 쌓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박무현이 경험하는 반복된 회귀는 더 빠르고, 편리하고, 완벽한 탈출을 위한 '반칙(cheating)'이 아니다.[67] 그는 각 회차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타인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반추한다.[68] 그에게 있어 회귀란, 차라리 지난 선택에 대한 반성을 강제하는 서사적 장치에 가깝다. 그는 "각 회차에서 매번 다른 사인으로 사망하면서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69]에 놓일 뿐이어서, "새로운 회차는 새로운 사인(死因)을 발명해낼 뿐"[70]이다. 다만, 이는 그가 매 회차에서 다른 탈출 방식을 시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때마다 도주로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은 매번 달라지며[71], 그 과정에서 박무현은 이전 회차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완전히 다른 면모를 발견하기도 한다.[72]

---

67) 유인혁, 앞의 글, 96쪽 참조.

68) 온갖 걸 다 되돌려보고 후회하는 인간이라 후회를 안 한 게 거의 없을 지경이다.(2권)

69) 살아난 것도 벌써 4번째인데 이렇게 소득이 없을 수 있다니.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일까? 아니면 나만 탈출 관련 정보들을 못 얻고 있는 걸까.//……하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박무현이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지능이 특출나게 똑똑해지거나, 몸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하진 않으니까.(9권)

70) 정윤영, 앞의 글, 464쪽.

71) 주인공 박무현의 회차별 이동 과정을 정리한 자료로는 정윤영, 앞의 글, 473-474쪽의 〈표2〉를 참고하라.

www.kci.go.kr

이런 장면들은 동일한 상대라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연결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들로 짜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지금의 나와 루프를 처음 시작할 때의 무지한 박무현은 아예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 해저기지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고?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다.//그립다.//보고 싶다.//거기서 그렇게 죽게 놔두기 싫다.// (…)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잃는 게 아주 많더라도 말입니다."(15권)

더 눈여겨볼 것은 그의 무한한 반성이 만들어낸 '완벽하지 않은' 결말이다. "루프를 처음 시작할 때의 무지한 박무현"(15권)과 모든 회귀를 끝낸 이후의 박무현은 "아예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15권)이다. 다만, 마지막 회귀인 6회차에서 그는 특별한 영웅성을 획득하지도, 모든 사람을 구해내지도 못했다. 그는 심해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을 이렇게 토로한다. "그립다. 보고 싶다. 거기서 그렇게 죽게 놔두기 싫다."(15권) 그런데 곧이어, 그럼에도 그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한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6회차의 탈출 과정에서 그가 몇 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렸다는 사실과도 연결되는데, 박무현은 자신을 끝없이 반성하면서도 자기의 손상을 '원상복구'를 요하는 부정적인 결핍의 상태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더 나은 자기 자신을 구축하기 위한 교양(bildung)의 목적으로 반성하는, 즉 완벽한 자기(self)에 대한 환상을 품은 채 자기-수렴적인 반성에 머무는 근대적 남성성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이러한 박무현의 반성은 차라리 발산적이라고 할만하다. 자기 취약성에 대한 수용이 오히려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72) 홀로 기억하는 나만이 당신들의 다른 모습을 안다.(7권)

www.kci.go.kr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협력에 대한 강조는 이 작품을 대표하는 중요한 경구와도 맞물린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 의지하라."(5권) 박무현의 말을 빌리자면, 심해 생물들이 자기 몸에서 스스로 불빛을 만들어 비출 때 그 빛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광하면서 조화롭게"(16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든다.

종합하자면, 〈전독시〉·〈내스급〉·〈어바등〉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조건으로 삼는 퀴어한 남성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독자는 공동체의 구원을 기다리는 극단적 수동성의 자리로 재위치화되고, 한유진은 완벽한 양육자라는 환상을 내려두고 피양육자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며, 박무현은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하면서 많은 이들과 협력한다. 여기에서는 세 주인공의 가장 도드라지는 행위성인 희생·양육·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사실 퀴어한 남성성은 현대 사회의 규범적 남성성과 멀어지려는 여하한 실천들을 얼마든지 포괄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다만 이 작품들은 기왕의 남성성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부단히 이탈하고자 하는 남성성/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국내 현대 판타지 웹소설의 중요한 성취로 이해될 수 있다.

5. 결론: '우리'는 어떤 남성성/들을 원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등장한 국내 인기 웹소설 중 현대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 세 작품을 젠더/섹슈얼리티 관점에서 살펴보고, 세 작품에서 재현된 '퀴어한 남성성'의 면모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남성성의 구성성과 복수성을 역설해 온 기존 남성

www.kci.go.kr

성 연구에 바탕하여,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2장)·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3장)·남성과 공동체 간의 관계(4장)라는 세 층위에서 주조되는 남성성/들에 주목했다. 먼저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에서는, 다른 남성과의 경쟁과 친밀성이라는 두 층위에서 기존 '남성' 범주의 규범성 바깥으로 이탈하는 퀴어한 남성성을 보았다. 이어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서는, 이성애 중심주의 내지는 강제적 이성애의 외부에서 여성과의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퀴어한 남성성을 분석했다. 끝으로 남성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는, 세 작품의 주인공들이 보인 희생·양육·반성이라는 행위성을 젠더화된 관점으로 의미화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퀴어한 남성성을 사유했다.

다만, 세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았음에도 '퀴어한 남성성'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퀴어'라는 용어, 나아가 퀴어 이론 자체에 전제된 유동성과 확장성 때문이다. 퀴어 이론의 급진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범주의 실재를 부정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이분법적 구분도 함께 비판하는 데 있다.[73] 그러므로 퀴어한 남성성을 정확히 정의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주와 그에 따른 규범성을 형성하는 반-퀴어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오직 퀴어한 남성성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의 삶과 텍스트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만 유효하다. 이런 맥락에서 퀴어한 남성성은 기존 사회의 규범적 남성성과 거리를 두되, 그저 주변화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규범적 남성성의 헤게모니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것으로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한 시대의 규범적 젠더 질서와의 길항 관

73) 미미 마리누치, 『페미니즘을 퀴어링!』, 권유경·김은주 역, 봄알람, 2018, 173쪽 참조.

www.kci.go.kr

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퀴어한 남성성은, 소위 '착한 남성'과 같이 도덕적 가치 판단이 부여된 이해 그리고 '남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고정된 실체로 전제하는 이해와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현대 판타지 장르의 웹소설이라는 당대의 대중 서사 텍스트를 남성성 이론과 퀴어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웹소설 연구의 지평에 젠더/섹슈얼리티라는 한 가지 축을 더하고자 했다. 이는 웹소설의 또 다른 문제들, 가령 BL과 GL, '남성향'과 '여성향', Mpreg물이나 BDSM물 등 젠더/섹슈얼리티 이론을 통해 더욱 정치하게 해명될 수 있는 주제들로 나아갈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로, '퀴어한 남성성'을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의 차원이 아니라 규범적 남성성에 대항하는 관계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으로 이해함으로써, 동시대의 국내 대중 서사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남성성/들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했다. 셋째로, 대중 서사 텍스트들에 잠재된 성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웹소설뿐 아니라 다양한 대중문화 텍스트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우리'는 과연 어떤 남성성/들을 원하는가? 어쩌면 그것들은 이 시대의 대중이 사랑하는 텍스트들 안에 이미 도착해 있는지도 모른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근서, 〈내가 키운 S급들〉(E-book 단행본), 리디북스, 2018~2022.

싱숑, 〈전지적 독자 시점〉(E-book 단행본), 네이버 시리즈, 2018~2020.

연산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E-book 단행본), 리디북스, 2021~2023.

2. 논문과 단행본

김기현, 「한국 현대 환상문학 주인공의 인물 유형 연구: 웹소설 판타지장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김아란, 「남성향 웹소설에서 나타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양상—노력·친밀성·우정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6, 207-245쪽.

김예지, 「BL 문화에서 키워드가 가지는 정형성: '광공'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94집, 한국비교문학회, 2024, 5-37쪽.

김준현, 「문학계의 평행우주,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하여」, 『작가들』 제73호,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20, 118-136쪽.

김지우, 「웹소설 판타지 장르군 분화 과정 연구: 로맨스 판타지 분화 논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박인성, 「디지털 전환 시대 현대 한국문학 연구의 동시대성: 웹소설·대중문화 콘텐츠·AI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0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77-109쪽.

손진원, 「여자들의 '차가운 분노'와 웹소설에서의 복수 서사」, 『여성이론』 제48호, 도서출판여이연, 2023, 133-142쪽.

안상욱,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유강은, 「옮긴이의 말」, 잭 핼버스탬,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 책빙의물을 중심으로」,

www.kci.go.kr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77-102쪽.
이융희, 「국내 웹소설 연구 현황에 대한 비판적 점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3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5, 143-174쪽.
_____, 『웹소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다, 2023.
이재희, 「욕망과 규범의 교차점: 노맨스 남성향 판타지 웹소설 여성 독자의 CP적 감상 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40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5, 235-274쪽.
이지용, 「웹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학연구』 제7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47-72쪽.
정윤영,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시공간성 연구—실패한 유토피아에서 반-디스토피아로」, 『대중서사연구』 제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453-487쪽.
한아름, 「국내 웹콘텐츠 BL장르의 남성캐릭터 연구」,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게일 루빈,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현실문화, 2015.
게일 캐리거, 『여자는 우주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송경아 역, 원더박스, 2025.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역, 니케북스, 2021.
래윈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미미 마리누치, 『페미니즘을 퀴어링!』, 권유경·김은주 역, 봄알람, 2018.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최성만 역, 길, 2008.
우에노 지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2.
에이드리언 리치,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이주혜 역, 바다출판사, 2020.
주디스 버틀러, 『혐오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주디스 핼버스탬, 『여성의 남성성』, 유강은 역, 이매진, 2015.
제인 워드, 『이성애의 비극』, 노지양 역, 라우더북스, 2026.
Alice Rossi, *Children and Work in the Lives of Women*, University of Arizona,

www.kci.go.kr

1976.

Eve Kosofsky Sedgwick, “Introduction,” ***Between 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Jeanyfer Tanusy & Trisnowati Tanto, “***Female Traditional Gender Roles in the Brothers Grimms' Sleeping Beauty: an actantial model analysis,***” ***Lire Journal*** Vol.7 No.1, 2023, pp.31-42.

3. 기타자료

박명기, 〈네이버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누적 거래액 100억 원 껑충〉, 『게임톡』, 2021.05.28.,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24 (최종 접속일: 2026.10.07.)

〈해량무현 배포전〉 주최 측 블루스카이 공식 계정(@haemu-share.bsky.social).

www.kci.go.kr

Abstract

Queer Masculinities in Contemporary Fantasy Web Novels after the "Popularization of Feminism" - Focusing on *Omniscient Reader's Viewpoint, The S-Classes That I Raised, and Becoming the Light of the Dark Sea*

Jung, Yoon-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er" masculinities represented in three popular Korean contemporary fantasy web novels—Omniscient Reader's Viewpoint, The S-Classes That I Raised, and Becoming the Light of the Dark Sea—and aims to identify the principles through which such masculinities are constituted. Rather than treating masculinity as a singular and universal category, this study traces how masculinities of difference are constructed, thereby demonstrating that contemporary popular web novels function as speculative spaces in which new forms of masculinity are explored and experimented with.

This study draws on queer theory, which calls the binary system of gender/sex into question, while particularly building upon the theories of masculinity developed by Raewyn Connell and Jack Halberstam. From Connell, it adopts the concepts of the constructed and plural nature of masculinity, and from Halberstam, it draws on the perspective of "rewriting masculinity." Furthermore, to account for the allosexual and heteronormative limitations of the binary system of gender/sex, which positions masculinity and femininity as each other'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5S1A5B5A17012117)

www.kci.go.kr

exclusive counterpart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posit diverse counterparts when examining the constitutive principles of masculinity. Accordingly, the main chapters examine, in tur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le protagonists and male supporting characters (Chapter 2), between the male protagonists and female supporting characters (Chapter 3), and between the male protagonists and the communities to which they belong(Chapter 4). Through these analyse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rotagonists' "masculinities" exhibit a queerness that conflicts with the norms operating at each of these levels.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ir resistance to the structures governing the distribution of masculinity within male homosociality; their identification with women beyond the sphere of patriarchal influence; and their enactment of community-oriented practices in ways that differ from normative masculinity.

In sum, this study argues that the three texts actively imagine and represent queer masculinities. It contributes to establishing the place of these texts in the histories of queer literature and web literature in Korea, while demonstrating that contemporary web literature is a particularly active site for literary imagination concerning new forms of gender and sexuality.

(Keywords: Web Novel, Contemporary Fantasy, *Omniscient Reader's Viewpoint, The S-Classes That I Raised, Becoming the Light of the Dark Sea*, Masculinity, Queer, Regression, Reincarnation, and Transmigration(Hoe-Bing-Hwan))

논문투고일 : 2026년 8월 9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6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8일

www.kci.go.kr